| 현불 논단 |

다시 직업윤리를 생각하다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잘못 입고된 주식 즉각 매도한
삼성증권 우리 사주 배당 사태
말 그대로 '어이가 없는 일'

모든 건 '직업윤리의 붕괴' 귀결
전문직 높은 수준 도덕성 요구돼
이들의 윤리 결핍은 사회적 해악

올바른 직업윤리가 필요한 시대
삿된 생각 않는 '정사유' 선행돼야
佛法, 현대적 실천윤리로 재조명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 지급 과정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부 삼성증권 직원들은 입고된 주식을 즉각 매도하여 증권가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면서 한국 증권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에 관한 글 청탁을 받고 관련 자료를 검색하면서 이렇게 엉성할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

주식매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공매도니 유령주식이니 하는 용어는 생소했지만 누가 보아도 어이가 없겠다 싶다. 주식은 흔히 '자본주의 꽃'이라 불리는데 주식배당사건이 한국 최고의 기업군에 속하는 삼성증권에서 일어났으니 정말 어이가 없다. 어이는 맷돌의 손잡이를 의미하는데 그동안 맷돌이 어떻게 굴러갔는지?

이번 사건은 크게 '사람'의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로 나누어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결국은 '직업윤리의 붕괴'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직업은 생계유지의 수단이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고 자아실현에 큰 기여를 한다. 우리의 삶의 길에 있어서 직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에 동서고금을 통해 직업윤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서양의 그리스도 문화권에서는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업에 임해야 한다는 소명의식(召命意識)이 이어져 왔다. 칼뱅은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기 몫의 일'이라고 보았다. 동양의 유교 문화권에서는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精神)이 전해져 왔다. 또한 우리의 전통 속에도 장인정신(匠人精神)을 중요하게 여겨 왔다. 장인정신이란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가지면서 최고의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신이다.

그런데 이를 어쩌랴. 일부 삼성증권 직원들은 잘못 배달된 물건을 확인도 안하고 되팔아 이득을 취했고, 그 중 일부는 잘못 배달된 줄은 알면서도 되팔아 버렸다. 여기에는 팀장도 있고 증권 애널리스트도 있다고 한다. 보통사람 같으면 가슴이 떨려서 하지 못할 일이다.

자기 통장에 갑자기 정체불명의 거액이 입금되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였을까? 잠깐 유혹을 느낄 수 있으나 이를 편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전문직들이 이런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전문직이란 고도의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종으로 독점성과 자율성을 승인받은 직업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전문직에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들은 윤리적 결핍은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직업윤리의 중요성은 팔정도(八正道)의 정명(定命)사상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팔정도는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에게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정명은 정당한 방법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자나 재물을 얻는 것이다. 정명의 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팔정도의 정사유(正思惟)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바른 생각을 가는 것이다. 삿된 욕망의 벽을 넘어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을 키우는 것이 바로 정사유일 것이다. 붓다 다르마가 현대적인 실천윤리로서 재조명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삼성증권 임직원 200여명이 집단적으로 반성문을 쓰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왠지 낯설고 서글퍼 보인다. 반성은 철저하게 고립된 공간에서 개인의 아픔과 고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닌가.

特別기고

①이집트서 보내는 편지

사막 바람 · 스핑크스가 내린 설법



진광 스님
조계종 교육부장

조계종 교육원은 4월 1~11일까지 승려해외연수 '혜국 스님과 함께하는 이집트 · 이스라엘 · 요르단 해외문명기행'을 진행했다. 당시 연수 진행을 담당한 교육부장 진광 스님이 서간문 형식의 기행문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쳐 스님의 기행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내 사랑하는 벗이여!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중동의 땅은 온통 회색빛 사막의 향연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오아시스와 별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 ·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책을 통해 보았던 이집트 문명의 현장과 유적들을 만나러 가는 여정은 그 자체로 가슴 뛰는 설렘과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과 스핑크스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자못 기대와 흥분을 자아냅니다.

먼저 카이로 기자지구의 피라미드 앞에 섰습니다. 사막위의 신기루인양 5000년의 세월을 이겨낸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신비롭고 위대한 건축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자는 외계인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당시 파라오의 장생(長生)을 위한 인간의 헛된 욕망의 상징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노역에 의한 결과물로 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시 모든 이의 삶과 비원(悲願)이 빚어낸 위대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법사인 혜국 스님께서도 "깨달음의 여정이자 수행의 결정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석양에 물들어가는 피라미드 앞에는 전설의 동물인 스핑크스가 침묵 속에 지난 역사와 세상의 비밀을 말하는 듯합니다. 사막의 바람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스핑크스의 침묵의 언어를 통해 시공을 넘어 오늘에 이르는 삶과 진리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길과 희망,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아스완에서 버스를 타고 4시간 여를 달려 룩소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룩소르 신전이 자리하고, 강 서쪽에는 왕가의 계곡과 핫셉수트 장례전, 그리고 멤논의 석상이 있습니다. 이곳을 보고나면 그리스나 로마문명의 유적은 그 아류인지라 눈에 안 찬다고들 합니다. 며칠을 보아도 질리지 않는 문명의 보고(寶庫)가 바로 이곳 룩소르입니다.

카이로에서는 자신만의 신앙과 열정을 간직한 콥트 기독교인의 거주지와 그들이 세운 모카탐 동굴을 방문하였습니다. 석회암을 뚫어 2만여 명이 예배를 볼 수 있는 동굴교회 의자에 앉아 잠시 좌선한 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곳 쓰레기 더미 위에서 연꽃이 피어나기를, 제2. 제3의 모세와 요한, 그리고 예수가 나오기를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아니, 다음 생에는 이곳에 태어나 불법을 홍포하기를 서원하여 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서는 히잡을 두른 어린 소녀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천진한 눈동자가 아름다우며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역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고 깨달음이며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듀! 이집트여, 내 사랑이여!

社說

文 대통령 법난 사과를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10.27법난 발생 38년 만에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유감을 표명했다. 과거 1988년 12월 강영훈 前국무총리가 10.27법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사례는 있으나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은 처음이어서 불교계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4월 17일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해 남북 평화무드 조성에 힘써준 불교계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는 군부독재시절 국가권력에 의해 성역을 침탈당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 신군부가 전국사찰을 짓밟고 무고한 스님들을 연행한 10.27법난이 그것"이라며 "불교계에 남은 깊은 상처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10.27법난은 1980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독재정권의 대규모 불교탄압사건으로 한국불교 현대사에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일로 평가된다. 당시 제5공화국 출범을 앞둔 신군부 세력이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사찰과 암자 5700여 곳을 수색하고, 스님과 불교관련자들을 강제연행해 고문한 이례적 불교탄압이었다. 그럼에도 27년이 지난 뒤에야 '국가권력 남용사건'으로 규정되는 아픔을 겪었고, 역대 대통령 누구도 사과한 바가 없다.

문 대통령은 기원법회에서 "불교계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돼 한국불교가 더욱 융성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10.27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지난 38년간 악몽 속에서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을 진정으로 위한 길일 것이다.

사찰 안전교육 필요하다

최근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된 한 국내 최대 유통마트에서 계산대 직원이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문제는 이 매장에 심장제세동기를 비롯해 안전요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응급상황에서의 초동대처에 대해 사측과 유가족 및 노조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국내 모 사찰에서도 3000배를 하던 한 고령의 어르신이 심장질환으로 쓰러졌다. 사찰 측은 응급차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이 어르신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후 1년간 이 사찰과 유가족은 책임공방을 벌이게 됐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이른바 '심장제세동기'를 제때 사용하는 것은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넘어 이른바 골든키로도 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가 '심장제세동기' 보급에 나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10월까지 전국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 29곳에 심장제세동기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사찰은 지리적으로 산중에 위치한 점과 고령의 연령층이 찾는 점에서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심정지 등 심장질환과 같이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더욱 응급조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제는 이러한 응급조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안전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단 점이다. 사찰에서의 안전 및 응급조치 교육은 늘어나는 탐방객, 그리고 고령화되는 불교신자들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계 내부적으로라도 전체 사찰에서 안전훈련을 실시하는 날을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정기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법당의 구형앰프 설비를 "80만원 보상해"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USB내장)』 셋트로
단 160만원 에 교환 설치 / (월 8곳만 예약순 설치 가능)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합니다!)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임 | 원

대 승 정 : 성광당 경보 대종사
원로원장 : 무명당 월곡 종회의장 : 대진당 혜월 승가원장 : 고암당 정인

▶각교구원장◀

서울교구 : 법룡 부산교구 : 무비 대구교구 : 지광 인천교구 : 혜초 대전교구 : 정수
창원교구 : 정우 경기교구 : 연봉 충북교구 : 심공 충남교구 : 능원 전북교구 : 진원
경북1교구 : 서암 경북2교구 : 대현 경남교구 : 혜묵

■ 문의 : 입종문의 안내(입종 구비서류 및 발급 증명서)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